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학교 적용 과정에서의 참여 교사 경험 이해

허 양 원 · 문 윤 섭[†]

한국교원대학교

Exploring Experiences of the ESD Model School Teachers

Yang-Won Heo · Yun-Seob Mo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ir experience through teachers' interviews in research schools for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The first issue for ESD in school was about how to approach ESD and how to combine it with the school curriculum. Of course, ESD can be approached through both subjects and discretion, which are operated with focus on experiential study. Most teachers approached ESD through subjects, but they had a lot of difficulties in its implementation because of insufficient understanding. The advantage of ESD programs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for experiential activity based on localization. However, difficult parts in applying ESD to school education were matters of budget for invitation of experts or for the experience learning as well as overworking of the teachers with conceptualization of ESD. Consequently, there has been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ESD in school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integrated thinking from diverse perspectives.

Stories of research school teachers offered through categorization of interviews will provide a lot of help in the process of applying ESD to school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experience of teachers, research school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experiential activit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2년 12월 제 57차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DESD)’으로 지정 선포하였으며, DESD를 선도하는 기

관으로 지정된 UNESCO와 UNU(United Nations University)는 지속가능 발전 지역전문센터(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CE)를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통일 RCE가 2005년 10월 처음으로 인증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성정희, 2006).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ysmoon@knue.ac.kr, Tel : +82-43-230-3769, Fax : +82-43-230-3785

ESD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선경 외(2005)는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환경적·문화적·경제적 관점에서 형식과 무형식, 비형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I 초등학교가 ESD를 교육의 현장에 도입하면서 사용한 방법이기도 했다(허양원, 2010). 또한, Bone 선언¹⁾에서 ESD는 이상과 신념에 근거한 학습과정(교수적 접근)으로 지속가능성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수준과 유형에 관계가 있다. 그 외에도 ESD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의 다섯 가지 - 지식에 대한 학습, 존재에 대한 학습, 더불어 삶에 대한 학습, 행함에 대한 학습,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학습 - 기본적인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

Wade & Parker(2008)는 EFA(Education For All)와 ESD를 비교하면서 ESD는 형식 교육에서 시작해 기술 훈련, 대중 인식의 제고까지 아우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립된 사회화를 통한 학습이 어떻게 도전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한다고 하였다.

ESD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면서 교육의 근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곧 기존 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재구조화하려는 시도이다. ESD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ESD 자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것이 존립하기 위한 교육적 기반, 즉, 올바른 방향성 위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삶속에서의 실천을 통한 교육의 실현으로 학생들에게 와 닿는 변화를 위한 교육으로 교육현장에서 펼쳐져야 일부에서 언급하는 너무 ‘추상적’이란 논의를 일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

능 발전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인류가 당면한 고민 해결의 접근을 바로 RCE와 같은 지역 차원에서부터, 그리고 교육으로 그 꼬인 매듭을 풀어가고자 하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허양원, 2010).

학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 흐름에 부합되는 교육 방식과 사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I 초등학교는 그러한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공교육이라는 학교의 틀 안에서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학교를 우리나라 최초로 수행하였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연구학교의 실시는 ‘이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현실적인 요구의 발현이 공교육이라는 체제 안에서 실시’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통영 RCE에서는 이러한 연구학교의 사례²⁾를 바탕으로 2009년 ESD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2010년 현재 일반화를 목표로 수정·보안하여 개발된 ESD 지도안을 적용한 교육을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 과정에서 많은 시행 착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시작인 연구학교의 ESD에 관한 평가와 학교 구성원들이 겪은 경험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학교의 사례가 그대로 시범 학교와 일선 학교 현장으로 스며들어간 결과로 연구학교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함을 얘기한다.

이러한 고민의 시작으로 최초 출발점인 연구학교의 ESD에 관한 정보와 진행 과정 상의 다양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교사들을 통하여 들어보고자 한다. 지속성이란 관점에서 연구학교에 직접 참여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지난 2009년 2월로 끝난 지속가능 발전교

1) [http://www.esd-world-conference-2009.org/\(2009.4.12.\)](http://www.esd-world-conference-2009.org/(2009.4.12.))

2) 2006학년도는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그리고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해 실시한 사례, 2007~2008학년도까지는 교과교육 위주에서 탈피해 재량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ESD를 학교교육과 접목한 사례를 지칭함.

육 연구학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연결 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일선 교육 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 착오를 줄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까지 ESD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ESD 연구학교인 I 초등학교를 통하여 ESD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그 진행과정을 참여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즉, 교사들의 ESD 연구학교에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연구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더 나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학교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학교를 3년간 수행

한 통영시 I 초등학교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행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한다.

2. 연구방법

가. ESD 연구학교 참여 교사 면담 실시

이 연구의 목적은 ESD 연구학교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현장, 즉 ESD가 실시되고 있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에서의 생생하고도 다양한 경험들을 연구학교 참여 교사들이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SD 연구학교에서 근무한 1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대상 교사들의 분포는 연구학교 참여 경력을 고려하여 1년차 4명, 2년차 4명, 3년차 5명으로 구성하였다. 3년차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은 연구학교 실시 1년차 때와 그 이후의 연구학교 진행 방향과 그 차이점에 대한 질문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고자 함이다. 1년차 때에는 교과를 통한 접근을 하였고, 2년차와 3년차 때에는 재량 활동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전사 후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다각화를 통하여 분석한 내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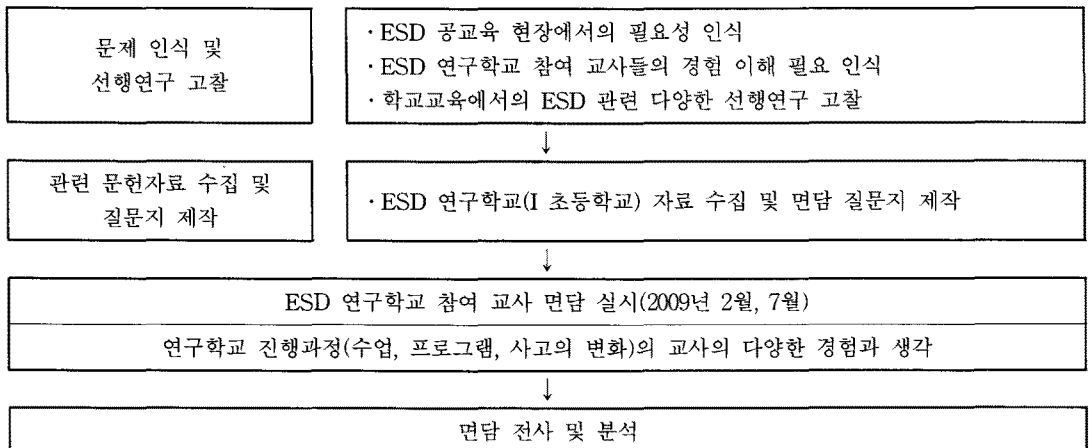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1) 면담 질문지 작성

면담 질문지는 세부적인 질문을 가진 구조화된 질문지와 반구조화된 질문지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

2008년 연구학교 보고회가 마무리 되고 난 직후였던 그해 12월을 면담을 위한 시기로 잡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져 결국 이듬해인 2009년 2월 학년말의 4교시 단축 수업을 하게 되는 조금은 여유로움이 시작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요청은 전화를 통한 개별적 연락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20분에서 40분 가량의 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추가 면담은 5개월 후인 7월초에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로 실시했던 면담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1차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실에서 이뤄졌으며, 약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13명의 기본적 사항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연구 참여자 이야기 듣기

연구 참여자들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2006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1년에서 3년간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학교에 참여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같이 근무한 동료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즉, 단답형의 답을 원하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 사항

이름	성별	연구학교 참여기간	교직경력 (2008학년도)	담당학년			면담 일시
				2006	2007	2008	
이혜인	여	1년	14년	•	•	4	2009.2.12.
한경훈	남	1년	1년	•	•	5	2009.2.12.
박정숙	여	1년	15년	•	•	2	2009.7.4.
강성수	남	1년	7년	•	•	4	2009.2.12.
오정원	남	2년	22년	•	5	3	2009.2.12.
김숙현	여	2년	19년	•	4	4	2009.2.12.
이준영 ³⁾	남	2년	17년	전담	전담	•	2009.7.4.
민정호 ⁴⁾	남	2년	17년	3	3	•	2009.7.4.
최태진	남	3년	17년	4	6	전담	2009.2.13.
진민수	남	3년	6년	2	6	1	2009.2.12.
김희진	남	3년	18년	1	1	전담	2009.2.12.
이인수 ⁵⁾	남	3년	17년	5	2	특수반	2009.2.13.
이신정	여	3년	11년	6	2	2	2009.2.12.

3) 2006~2007학년도 ESD 연구학교 주무.

4) 2006~2007학년도 ESD 연구학교 연구.

5) 2008학년도 ESD 연구학교 주무.

6) 2005~2007학년도까지 I 초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2006학년도에는 6학년, 2007학년도에는 4학년을 각각 담임함.

는 구조화된 질문을 통하여서는 그에 대한 생각과 경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고 반구조화된 질문에서는 어떤 경험과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구조화된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고, 점차 반구조화 되고 열린 질문들을 섞어서 진행하였다.

4) 면담 내용 전사 및 분석하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를 하였다. 전사는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하였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의미의 연결에 크게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이어갔다.

폼플레이어⁷⁾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끊어듣기와 반복 기능을 활용하여 받아 적기를 하였다. 이 과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듣고 또 듣고, 전사한 내용을 읽고 수정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전사의 내용은 모두 MS-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전사 내용에는 쪽마다 줄번호 매기기 기능을 통하여 모든 쪽에 연결된 번호를 매겼다. 면담 참여 교사 중 11명의 면담 내용은 전사하였으며, 2명은 인터뷰 로그(Interview log)를 작성하였다. 전사하는 가운데 연구 대상자의 느낌이나 면담 전·후의 주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전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면담 내용을 전사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나 정보들은 실제 자료 분석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모도 함께 실시하였다(Bogdan & Biklen, 2007).

전사한 내용은 여러 차례 읽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과정에서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Word와 Excel 그리고 Thinkwise이다. Word는 연구 참여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중요 사항을 그림 2와 같이 메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Excel은 Word에서 메모한 내용을 옮긴 후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범주화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에 적절한 범주내용을 그림 3과 같이 기록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의 분석 내용은 한 Sheet에 모아져서 범주화 된 것을 다시금 묶고 풀어내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적 비교 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방법이라고 한다(Merriam, 1998). 이 연구에서 반복적 비교 분석을 도우기 위해서 Excel과 Thinkwise를 사용하였는데, Thinkwise는 엑셀에서의 범주화를 완료시킨 후 범주화된 목록들끼리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사용하였다.

5) 다각화하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에 대

76	교의 문제점들을 다른 학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나가야 좀 확산을 시	메모 [C6]: 환경교육 연구학교와는 달리 사전 경험 자체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학교에 ESD 적용 하는 것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77	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78	그럼 보완을 몇 년이나 해야 될까요?~	메모 [C7]: 연구학교 끝나고도 연구학교 내용을 지속하려면 실행
79	딱히 몇 년이라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그 연구가 끝나고 나면 어느 학교든지, 그 연구의	
80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연구를 경제적 관점이	
81	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그야 말	
82	로 특색이라든가 이런거를 연구학교의 실행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83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평초등학교가 초등학교에서 빈 그릇	
84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행해 오고 있는데 물론 그게 연구학교 끝났다고 해	
85	서 그게~ 어~... 문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방안이라든가 이	

그림 2. Word를 사용한 전사내용 메모하기

7)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알송, 콤오디오,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 등)은 원하는 구간에서 반복과 끊는 작업이 용이하지가 않았다.

56	통영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함(처음 고민의 시작, 처음 시작한 목표점)	주된 운영방식
104	학교에서 ESD를 실시하면서 체험학습이 많이 병행됨	
106	인평이 추구했던 연구학교 운영방식-다양한 주제가 참여하는 파트너십 형성	
187	연구위원 선정 이유 및 활용방법	
259	빈 그릇운동에 대한 기대감 표시(습관화 될 것임)함	
281	학부모 연수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도록 함	
285	전문가 초빙을 통한 학부모 연수에서 많은 의미 있는 반응들이 많았음	
298	학생들에게는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체험이 중요함	
300	자기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다른 학교와의 큰 차이	
379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함-학부모 전문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신문 기자 등	
101	ESD와 ER가 중시하는 것-생활방식의 실천변화	ESD 접근방식(수업방식)
126	ESD를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교과목 중에서 학습내용을 조직화해서 다루는 것이 좋은 방법	
144	수업자료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활용	
145	수업방식은 교사가 자유롭게 조직함	

그림 3. Excel을 사용한 메모 내용 범주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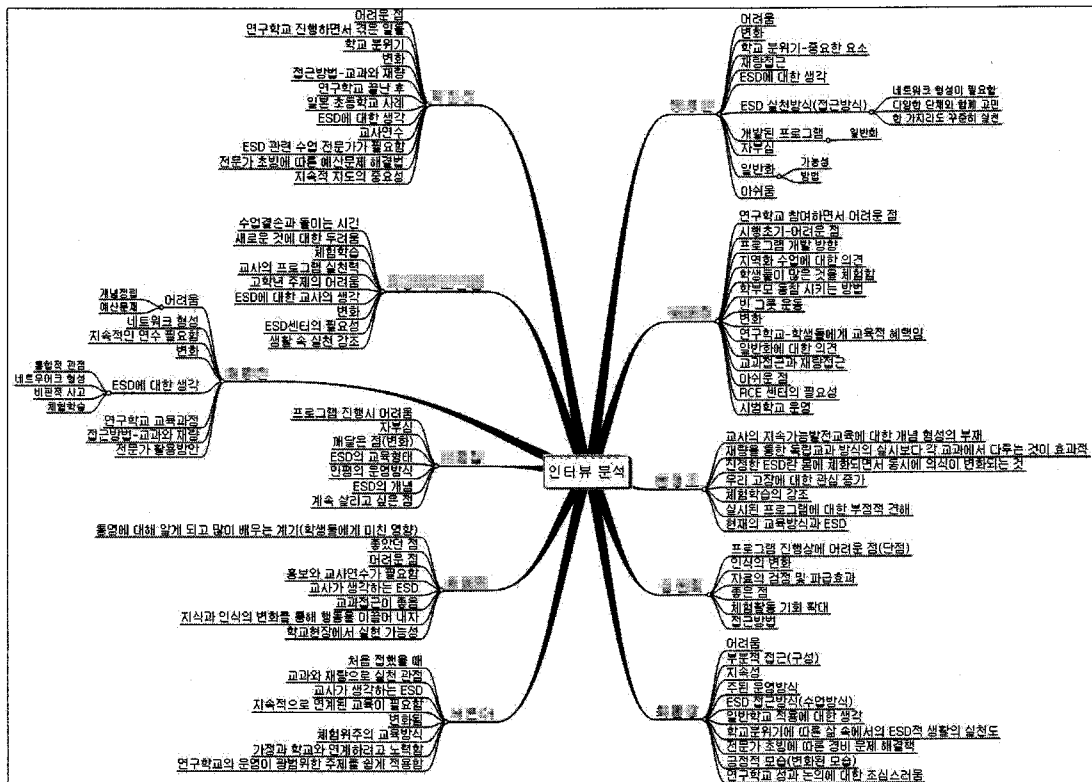


그림 4. Thinkwise를 사용한 범주 목록끼리 반복적 비교 분석하기

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화 기법을 사용한다(김한별 2008).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 확인과 동료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확인 작업으로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 13명 가운데 참여자 확인 작업에 동의한 5명의

교사에게 연구 결과, 검토를 이메일과 전화로 통하여 의뢰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물어본 후 연구 참여자들이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 다른 작업으로 전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해석이 완료된 후에 그 내용을 읽어주는 또

다른 독자에게 해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현직교사 2명에게 의뢰하여 연구 결과가 분석에 활용된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순이나 왜곡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III. 연구결과

ESD 연구학교를 3년간 수행한 통영시 I 초등학교의 연구학교를 수행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내용은 연구학교 시작, ESD에 관한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 프로그램 진행상의 장단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 일반화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1. 면담 분석

가. 연구학교 시작

연구학교는 시범 학교가 실시되기 이전에 시범 학교 실시를 위한 전초 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시행 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I 초등학교와 같이 전혀 접하지 못한 주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연구학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에게 ESD가 무엇인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기반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I 초등학교는 연구학교를 진행함에 있어 일종의 2원 체제를 구성하였는데, 두 명의 연구전담 인력을 두었다. 즉, 연구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주무 교사와, 연구학교를 지원해 주며 학교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는 연구 부장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교사를 통해 연구학교의 초기 경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6학년도부터 I 초등학교는 ESD라는 생소한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학교를 추진하였다. 연구학교를 맡은 주무를 비롯해 많은 참여 교사들은 생소한 영역에 대해 많은 당혹감과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2년간 연구 주무를 맡은 이준영은 초창기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 교육과 접목시기에 어렵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모르기 때문에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고 사회적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었고 내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당혹감은 어쩌면 연구학교를 이끌어 가야 하는 주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주위에 손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현실은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실제 자문을 직접 해야 하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과 같은 곳에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연구학교 초기 진행 과정 상의 어려움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확실히 엿볼 수 있다.

연구학교 초기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자문을 해결 수 있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지역 교육청과 같은 곳에서도 그런 분야 또는 이 영역의 단어조차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또, 간혹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 기존 연구학교의 개념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게 이런 것 아니냐?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학교 시행 초기의 주무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공교육의 틀이라는 현실이 그 제한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예산 지원이 통영시청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해, 지역교육청과 시청 사이의 조율을 통해 운영 방식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ESD가 학교 현장에서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연구학교의 진행에 관한 자문 교수들의 의견은 큰 틀을 잡아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은 각 학년에 한 명씩 있는 연구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잡음이 있었다. 자문 교수들과 잡은 큰 틀을 실행하는 방법상 문제였다. 교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 I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담임하고 있었던 연구자 본인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잡음들 속에서도 연구학교 운영 방식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지만, 참여 교사들에게는 무엇보다 ESD 자체가 가지는 분야의 광범위성이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민정호는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와 구상을 맡은 연구부장으로서 처음 ESD를 교육 과정에 적용할 때의 생각을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데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뭐 문화 같으면, 환경 쪽 같으면 그 부분만 우리가 수준과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문화도 해야 되제, 환경도 해야 되제, 경제도 해야 되제. 또 그것을 통합하라고 하네. 너무나도 많은 거라. 영역 자체가 또 인권, 생물 다양성 (...) 그 항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라. 그리고 첫 해에는 교과와 연계해서 그것을 접목하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라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전부가 다 ESD더라 이야기.

민정호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전부가 다 ESD더라”란 말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감하는 얘기였다. 모든 교과, 모든 차시에서 ESD를 적용하려고 하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2006년 당시 교과를 통한 접근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은 자문교수들의 영향이 크지만 이 방법이 걸림돌을 만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범위의 광범위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기상의 부적절함이었다. 시기상의 부적절함은 연구학교의 지정 시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점은 교사들이 느끼기에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일반 교육 과정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왔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한 이준영의 이야기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준영은 좀더 자세하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2월말 즈음이 되면 학교와 학년 교육 과정이 마무리 되는데 연구학교 지정은 2월말이 되어야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3월을 넘어서기 때문에 연구학교의 주제들을 교육 과정에 삽입시키고 긴밀하게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늦고 맞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들도 있죠.

연구학교 지정 시기 문제는 학교 전체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 과제의 연속성으로 인해 2년제인 2007학년도에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ESD를 어떻게 접근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접목시키는가였다.

나. ESD 접근 방법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들은 진정한 ESD란 몸에 체화되면서 동시에 의식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직접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체험 학습의 꾸준한 실시를 통해 체득할 수 있다고 했다.

교사 오정원은 “ESD는 학교 전체 단위의 참여와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학습을 통해 (...) 몸에 베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학생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작은 일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교장을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게 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작은 실천부터 아이들의 단계에 맞는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실천과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깨닫게 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I 초등학교에서는 ESD를 접근하는 데 있어

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 이준영의 말을 빌리자면 ‘부분적 접근과 체계적 접근’이라고 할까? 그는 이중 부분적 접근법의 전제 조건으로 ESD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었다.

ESD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차시의 전체를 다루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전개 부분에서 그 활동 내용의 한 부분으로서 ESD와 관련되어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것이 ESD를 교육 내용에 접목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영이 말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은 교과를 통한 접근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수월하게 ESD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제시하고 있다. 최태진도 현실적으로 ESD를 재량 활동으로 “각급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교과에서 풀어내는 게 가장 쉽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정호는 연구학교 1년차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교과에서 적용하는 것이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교과에서 적용하는 것을) 막상 해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계열성도 없고 그렇더라 아이가. 그래서 교과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재량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모으는 것이 우리가 적용하기도 쉽고 연구학교 추진하기에는 더 쉬웠지.

교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첫째, 계열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연구자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교과 내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계열성이 없다는 지적에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수급이

가는 부분이다. 둘째 연구학교 추진하기가 재량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연구학교는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 교과에서 접근보다 재량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는 훨씬 그럴싸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맨 처음에 우리가 교과 쪽에서 해 보고 실패했잖아. 어려워 했고, 힘들어 했고”라고 말하면서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과 쪽에서 접근한 경험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재량보다는 교과를 통한 접근, 이준영의 말을 빌리자면 ‘부분적 접근’ 방법을 훨씬 선호하고 있었으며, 더 현실적 방안으로 여겼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연관지어 ESD를 수업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준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학습하는 교과목 중에서 학습내용을 조직화해 (...) 직접 우리 지역의 문제나 제재들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로 ESD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역화의 내용인 것이다. 또한, 그는 수업 내용 조직화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하고 우리가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D 목표에서 다뤄야 하는 학습 내용 조직 (...) 목표하고 조금 다름이 발생할 수 있는데 (...)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ESD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조직화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ESD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선 그냥 환경교육처럼 진행하다 보면 환경교육인가, 국제 이해 교육인가, 에너지 절약 교육인가 하는 뭐 별 차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냥 쉽게 접근하는 그런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업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도

8) 이준영이 말하는 부분적 접근임.

철저한 ESD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ESD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다른 교과와 교육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I 초등학교는 교과를 통한 특별 활동과의 연계 방식, 재량과 특별 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 방식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ESD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접근하였다. 그리고 ESD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문제나 제재를 중심으로 한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주된 교육 방식 중 하나는 체험 학습이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교과 내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적용하는 것에 따른 사전 조건과 문제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

다. 프로그램 진행상의 장단점

1) 좋은 점

최초란 것에 대한 자부심, 또는 맨 바닥에서 일궈낸 긍지라고 할까? 연구 참여자 중 몇 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ESD 연구학교를 수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하였다. 김희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학교를 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이인수도 같은 맥락에서 처음 실시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언급하였다. 교사의 자부심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과 움직이는 동력 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학교 운영으로 인한 충분한 예산의 지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더불어 재미와 많은 경험도 함께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체험 활동의 중심에는 ‘지역화’라는 전제 조건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정호는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 학습의 유익한 점을 직접 실행한 프로그램으로 설명해 주었다.

외국인과 자원 인사를 초빙하는 거 (ESD 연

구학교와 같은)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거 못해 본다. 그런 경험 못해 본다. 그리고 통영엔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인간문화재인 전문가가 와가지고 만드는 것 도와주고 날리는 것까지 시범 보여주고 (...) 진짜 통영의 그 문화를 저거가 직접, 저거 눈으로 아~! 우리 고장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또 자랑할 거리가 있었구나.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진짜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지. 그런 것들은 지역화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거든. ESD가 지역화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라.

ESD의 시작은 지역에서부터이다. 이러한 점은 3, 4학년이 통영의 전통 문화에서 접근한 배경이기도 하다. 통영연과 나전칠기, 통영오광대 등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해 보고 전문가와 함께 접해본 것은 연구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하나의 ‘혜택’임이 분명하다. 또한 그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실천이 안 된다니까. 지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해. 배우도 자기가 직접 해 봐야, 요령을 터득하듯이. 그런 것을 해 봐야 우리 고장 문제점도 알고, 어떤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지도 알고. 우리 고장이 가지고 있는 개발 가능한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또 활용을 해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게 ESD 아이가? 그거를 몸으로 느끼고 저거가 하려면 통영 구석구석을 저거가 직접 느끼고 봐야 돼.

라고 언급하면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체험이란 용어로 대신하였고, 실천을 위해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환경교육을 직접 접하지는 않았지만 KAB 모형(Knowledge-Attitudes-Behavior Model)의 한계를 적절한 예로 지적하고 있는 듯 했다.

오정원도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2학년이 했던 활동을 예로 들었다. “우리 고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쓰레기 줍기라든지 자연 보호 활동을 직접 내가 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좋았어요.”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체험 학습을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ESD를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아이들은 아직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무엇인지, 그걸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 이 작은 일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고장을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이해인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ESD를 구성해야 한다.”는 표현과 동일하다. 같은 맥락에서 진민수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생활수첩이 가정과 연계된 자발적 실천을 유도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은 ESD를 학교교육이란 영역에서 가정이란 영역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 ESD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지역 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그 시작은 작은 생활 속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발상인 것이다.

연구학교 마지막 해에 참여한 강성수는 ESD 연구학교의 가장 큰 의미를 “학생들의 사고를 ESD적인 사고, 그런 쪽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서 터졌다는 것”에 두었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는 ESD를 통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사고에서 한 걸음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종합적인 그리고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로 나아가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신정은 ESD 연구학교에 3년간 참여하면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자신의 사고를 바꾸는 계기였음을 얘기하면서, 지역 인적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형성에 관해서 많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일반학교 교육 과정과 다르

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교육 과정의 운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는 그 해 교육과정의 충실도나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나도 뭐 내 후년까지도 생각 안하고 뭐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고 그런데 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단계 단계인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더 인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이신정의 생각은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왜 필요한지 묻는 여러 의문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단초(端初)를 제공하고 있다.

ESD가 가진 교육적 매력은 연구학교 참여 교사들 스스로가 좀더 ESD적인 사고를 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연구학교의 점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도 지역적,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의 폭이 넓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연구학교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적 혜택인 체험 활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데 있다.

2) 어려운 점

프로그램 진행과정 상에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바로 교사들의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 정립 문제였다. 오정원은 이에 관해 “ESD 즉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라는 말을 하였고, 이신정도 역시 “ESD란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혔다.”고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행 초기 많은 교사의 ESD에 대한 개념인식의 부재는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념 정립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은 ESD 연

구학교에서 실시하는 많은 활동들이 환경교육 시범 학교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정숙은 “환경 시범 학교하고 뭐가 다르냐?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말하면서 ESD 공개 수업을 보고서야 그 차이점을 알았다고 하였다. 최태진은 “지속가능 발전교육 이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환경교육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어려움을 얘기하였다. 이것은 ESD의 많은 부분들이 환경교육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시 상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어려움을 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 학년에 연구학교 주무를 보조하고 각 학년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한 명씩 지명하여 연구학교를 추진하였다. 대개는 부장교사가 이 일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의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프로그램 진행상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업무 집중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을 진민수는 수업 결손을 꼽았다.

재량 활동 시간이 교과 활동 시수보다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란 명목을 추진하고자 하면 한 시간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 같은 연구위원들 경우에는 결손이 아닌 결손이 있었거든. 예를 들면 공개수업 하는 날, 내 같은 경우에는 촬영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야. 1교시, 2교시, 3교시 오늘 공개가 3개가 있으면, 우리 반은 자습 내지는 대강 선생님께서 와서 해결해야 하는, 그날 하루는 수업 반타작 되는 거지 뭐. 수업 다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협의회까지 이어져 버리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 학년은 좀 나는데 부장하고 연구위원이 겸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루 그날 올인, 아침에 아이들 얼굴보고 집에 갈 때 청소하는 것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공개 수업 방식과 연구위원의 운영 방법, 그리고 공개 수업 후 수업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연구학교나 시범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는 재량 수업에 들이

는 노력이 교육 과정 전체 운영에 있어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크게 차지한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는데 체험 학습 위주의 운영 방식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작년에는 갯벌도 갔다 왔고. 가기 전부터 일단 사전 조사도 하고, 조사 계획도 세우고, 사전 학습지로 읽어보고 준비하고 갔다 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갯벌을 한 번 가려면 갯벌의 생태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모듈별로 해가지고 미리 이런 과제를 던져줘서 나름대로 애들의 머릿 속에 한 번 거쳐서 나왔던 것을 가지고 갔다 와서 정말 어떤데? 니랑 했던 게 뭔데? 이런 것이 일반 체험 학습보다 좀더 꼼꼼하게 한 시간짜리지만 네 시간 이상의 과학이나 이런 것만큼의 중요도, 에너지 집중도가 쏠리는 것 같더라구.

진민수가 실시한 교육은 말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자 참교육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의 운영을 이뤄야 하는 공교육 제도 하에서 지속성의 문제와 결부한다면 어떠한지 의문이 든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학부모, 그런데 그들의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인식 변화의 미비함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신정은 “학부모의 인식 제고가 안 되어 가지고 학부모가 학생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었다.”고 말하면서 덧붙여 “가정으로의 연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있네요.”라고 언급하였다. ESD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협조와 동참은 필수적이다. ESD가 실천적 성격이 강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이 많은 것이 그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 실천 곧 냉난방 온도 낮추기, 전기 코드 뽑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은 바로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ESD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꽃을 활짝 피우고 그 향기

를 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구학교나 시범 학교의 큰 단점으로 많이 회자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속성이다. 연구나 시범 학교와 같이 승진에 관계된 점수를 받고 나면 많은 수의 교사들이 그 학교를 떠난다. 이 점이 지속성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준영은 “연구학교가 끝나고도 연구학교의 좋은 내용들을 지속하려면 실행 가능한 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주제의 발굴이 행하여졌던 활동들, 핵심적 방안들이 계속해서 해당 학교에서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 다른 학교에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1 초등학교가 실행하여 올바른 모델을 제시했던 빈그릇 운동, (...) 에너지 절약 교육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미래교육과 관련시켜서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줘야한다.”고 말하면서 연구학교가 해야 될 일들이 과제 수행 기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지역 거점 학교로서 지속적인 공급자이자 연구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진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연구학교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 뭐니 해도 예산 문제였다. 이것은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예산이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체험 학습과 전문가 활용 학습으로 인함이다. 이인수는 이런 이유가 ESD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격 때문으로 여기는 듯 했다. “우리가 비형식, 무형식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외부 전문가나 강사를 초빙할 때 (...) 문화적인 면을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재료를 산다든가 전문가를 부를 때 (...) 돈이 좀 많이 들고” 즉, 지역의 다양한 비형식, 무형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ESD의 성격으로 인한 예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준영은 조금은 자세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ESD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뭐냐면 생활 방식의 실천 변화입니다. 인식을 하고 그

걸 실천해 내는 건데 실천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 직접 체험을 해 보거나 실험을 해 보거나 또는 실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 합니다. (...) 현장 체험과 전문가 활용 수업을 통한 체험 같은 경우가 많이 병행되는 있어, 경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경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여러 협력기관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데 (...) 그분들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자기 봉사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관련기관의 입장도 있고…….

그는 ESD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경비가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I 초등학교에서 개발한 3, 4학년의 수업 (지역의 문화 관련)의 경우 학교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함을 뜻하고, 일반 학교에서의 적용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준영의 생각은 ESD를 각 학교에서 적용할 때 재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과 동시에 실행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RCE 센터 건립을 통한 전문 인력 풀제를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ESD를 처음 접함으로써 인한 개념 정립 문제의 어려움은 대다수 교사들이 함께 겪은 일들이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교사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차츰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업무의 편중 문제는 연구학교 시행 초기부터 마지막 마무리하는 해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였다. 그리고 교과로 접근할 때와 비교해 재량에서 접근한 프로그램을 선택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해 과연 I 초등학교에서 개발한 일부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라. 인식의 변화

연구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

의 인식 변화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도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가장 큰 영향으로 고장에 대한 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ESD의 시작이 지역화라는 특징에서 연유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량활동을 통한 연구학교를 2년간 경험한 오정원은 연구학교의 활동들을 회상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고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가 쉬웠는데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 (감탄 섞인 말투로) 아~ 참! 우리 고장이 자랑스럽다. 이런 곳에서 자라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라고 말하면서 고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가 참 좋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환경,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라는 오정원의 언급은 ESD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자신이 속한 환경과 지역 사회로의 다양성을 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환경교육의 한 특징으로 말하는 ‘자기환경화’의 원리가 ESD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인식의 변화는 고학년에서 뿐만 아니라 저학년에서 더욱 쉽게 일어났다. 이신정은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였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 실천으로의 전환도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이제 2학년이라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천합산이라든지, 양식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예전에 비해 많이 확산되었다 해야 하나? 하다못해 다른 수행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고장 천합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웃음) 모든 것에 갖다 붙일 정도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 아이들이 환경이라든지 우리 고장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신기하기도 해요. 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싶어요.

이신정은 서서히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ESD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힘을 새삼 깨닫고 있다.

ESD가 교육 현장에서 정착되어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행동의 변화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활동이라는 물리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간이라는 큰 축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단순히 보이기 위한 즉석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는 쉽게 달성되지 못하는 학습자의 내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준영은 1회용품 사용과 습관화, 그리고 지속성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진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1회 용품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학생들에게 적게 사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다 보니 (...)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적게 써야 되는가 알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시작하다 보니 작은 것에서 차츰 습관화되어 갔습니다. (...) 이런 것이 습관화 되니까 계속해서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의 이러한 습관 형성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자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관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발점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ESD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어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많은 교사들이 말하고 있다. 박정숙은 이에 대해 “관점이나 이런 것도 아주 넓게 봐요. 넓게 보는 것이 느껴져요.”라고 말하면서 폭넓은 시각으로 보는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인식의 변화로 파악하고 있었고, ESD를 통한 수업의 꾸준한 실천으로 학생들의 몸이 베이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와 더불어 교사의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ESD가 자신

에게 미친 영향으로 한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점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인수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생각이 그렇게 통합적인 방법으로 보게 바뀌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말하였다. 최태진도 이인수와 같은 자신의 변화를 말하면서 “한 가지만 보려고 안 한다는 것”을 꼽았다. 교사들의 대부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관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을까?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김희진은 자신의 변화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폭이 넓어졌다.”는 사고의 폭으로 얘기를 달리 표현했다. 이러한 사고의 폭이 넓어진 것은 시각의 확장이자 관점의 확장이다. 이해인의 말대로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ESD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한 교사들 스스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참여자들의 말을 보면 분명 연구학교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학생들 인식 변화가 완전한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분명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고장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른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 총체적으로 조금씩 보게 되었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씨앗이 그들 사고의 발에 심겨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학생들을 넘어서 함께 가르치고 참여한 교사에게까지 그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 일반화 방안

연구학교의 사례가 시범학교를 거쳐서 일반 학교에까지 전파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ESD와 같이 전세계적 위기에서 시작된 교육은 일반화 또는 보급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함께 고민되어질 필요가 분명 있다. 여기서

는 I 초등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ESD가 일선 학교에 쉽게 일반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ESD와 같이 생소한 분야의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을 학교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ESD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교사를 비롯해서 학생,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ESD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너무 넓고 각 주제나 요목 등이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적이고도 평생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사 교육에 대해 이준영은 “학교에서 교사가 ESD에 관한 전문가들로부터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적인 연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전문가 과정으로 나뉘는 구체적인 연수 단계도 제시하였다. 교사 연수와 더불어 병행해야 하는 한 축이 바로 학부모 연수이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교교육이 활성화되고 가정과 연계된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서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ESD의 특성상 “ESD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와 가정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숙현의 말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금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지 연수를 위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의 초빙이 필수적이다. 국내 여건을 본다면 지방, 특히 통영시와 같이 남해안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ESD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재정적 부담과 함께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진민수와 민정호는 ‘RCE 센터’를 언급하면서 센터를 통해 강사 초빙에 따른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정호는 “통영지역의 ESD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 (...)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연결시켜 주고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지.”라고 말하면서 RCE 센터가 지역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구심점과 안내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센터를 통해서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학부모 교육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시민 교육이라는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ESD가 학교 교육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한 ESD가 보다 수월하게 가정과 연계되어 실현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정호는 일반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ESD의 특성상 지역화를 통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말하면서 “지역화 되어야 되고 또 특색화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ESD가 다른 지역이나 학교에 옮겨가도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시행착오를 또 거쳐야 되는거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한 노력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I 초등학교에서는 자료의 공유와 보급을 시도하였다. 정보부장을 맡았던 진민수는 이러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3년 노하우를 정리해서 작년(2008)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다 올려놓았고, 텍스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CD에 구워서 보급을 했고 (...) 수업을 위해서 수업장면 동영상 장면들, 공개수업 했던 장면들을 18분 자료로 편집해서 다 올려놨어요.

일종의 I 초등학교는 ESD를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른 일반 학교에 기댈 언덕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I 초등학교는 먼저 그 길을 걸어 갔으므로 교사들 자체가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I 초등학교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학교를 방문하면 전담실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 3년간의 활동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향후 RCE 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으로 자료를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다.

학교에서 ESD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분위기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 초등학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연구학교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ESD적 학교 분위기의 형성이라고 하겠다. 통영시가 RCE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적 분위기와 연구학교라는 특색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박정숙의 말을 빌리자면 “완전히 ESD에 폭 빠져 있는 학교”란 이야기다. 이러한 학교 전체의 분위기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도달 가능하며, ESD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접근하기가 훨씬 유리해진다.

정리하면, 한 소도시의 작은 학교에서 실시된 ESD라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교육 방식이 교육 현장에서 쉽게 적용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속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 교육과 함께 ESD적 사고에 기초해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서의, 교육적 생활 속 실천은 일반화를 넘어서 모든 교육에 ESD를 삼입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I 초등학교가 다른 일반 학교를 위한 역할 모델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일반화 속도는 가속이 붙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지속성의 확보이다. 현재 I 초등학교는 교사 박정숙의 주도로 유네스코 협동학교 형식으로 연구학교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⁹⁾. 말 그대로 지속성을 유지하고

9) 면담 당시는 1학기말(7월 4일)로 유네스코 협동학교를 신청해 놓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1학기 때 실시해야 할 프로그램 중 일부가 2학기로 연기되거나 실시되지 못하고(3학년 프로그램 경우 통영 전통연 만들기과 나전칠기 소품 만들기인데 1학기에 배정된 나전칠기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있었다. 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3, 4학년의 경우 예산 수반은 필수적이었다. 박정숙은 예산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일부 연구학교 프로그램에 관해 “예산 없이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질문한 연구자의 물음에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야 하며 그 형식은 무료특강 형식을 언급했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인센티브 제공 등은 계속 흘러넘치는 샘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다. 그리고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RCE 센터의 건립을 통해 한 층 세련되고 체계적이며 수월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 발전이 교육과 접목되고 홍보되며 보급되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지속가능 발전교육(ESD)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의 학습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이다. 즉, ESD는 현 세대의 교육 문제와 도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ESD를 학교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ESD 연구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 지역 사회 또는 학교에 맞는 ESD를 재구성하고 보급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SD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ESD 연구학교인 I 초등학교 1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ESD 연구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ESD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연구학교가 실시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ESD 참여 전후의 사고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문제로 삼은 ESD 연구학교의 경험 이해를 위해 13명의 연구학교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을 분석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학교 초기에는 ESD를 어떻게 접근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주로 고민하였다.

둘째, ESD에 관한 접근 방법은 교과를 통한 접근 방법과 재량을 통한 접근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체험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교사들의 대부분은 교과를 통한 접근 방법을 선호했으나 ESD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ESD 프로그램 진행상의 장점은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학년별 체험학습의 실시와 전문가 초빙에 따른 예산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ESD를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ESD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 편중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ESD 연구학교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합적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학교 현장에서 ESD 적용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먼저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ESD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ESD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ESD를 실시한 연구 또는 시범학교들이 ESD 일반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여 ESD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ESD 연구학교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경험을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기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면담 내용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제시된 연구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는 추후 ESD를 학교 교육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사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서의 ESD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면담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해당하는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ESD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둘째, ESD를 교육현장에서 받은 수혜자인 학생들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들이 초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들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남수 (2007).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회고적 평가-1997년 ‘지역 사회단체 지도자를 위한 시범환경교육’ 참여자의 내러티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한별 (2008). 초임교사의 학교문화 적응과정에서의 학습경험 이해, **평생교육학연구**, 14(3), 21-49.
3. 밀브래스 (2001). **지속가능한 사회: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이해**(이태건·노병철·박지운 역), 서울: 문학과 비평사.
4. 성정희 (2006). 지역전문센터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06 학술대회 및 한마당**, 185-188.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200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향하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 이선경, 김대회, 김인호, 이재영, 정철, 김남수, 김수연, 정수정, 조은정, 최인미 (2006).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환경교육**, 19(3), 123-137.
7. 정대연 (2004). **환경사회학**, 서울: 아카넷.
8. 이선경, 이재영, 이순철, 이유진, 민경석, 김남수, 하경환 (2005).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9. 최영분, 민병미, 최돈형 (2005). 지속가능성 교육으로서 초등학교 환경교육 체계화 연구, **환경교육**, 18(1), 1-30.
10. 최은지·최돈형 (2005).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환경보전시범학교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하반기 발표논문집**, 148-151.
11. 통영시 (2007). **유엔지속가능 발전교육 통영센터(통영RCE) 장기운영계획**.
12. 허양원 (2010). **학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연구학교 경험 이해와 평가준거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Merriam, S. B. (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강윤수 역). 서울: 교우사.
14. Bogdan, R. C.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5th ed)*. Boston: Pearson.
15. Breiting, S., Mayer, M. & Mogensen, F. (2005). *Quality Criteria for ESD-Schools*. ENSI/SEED.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Culture.
16.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7.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07). *The Global Dimension in Action: A Curriculum Planning Guide for Schools*.
18. Riessman, C. K. (1993). *Narrative Analysis*. SAGE publications. preface.
19. Wade, R. & Parker, J. (2008). *EFA-ESD Dialogue: Educating for A Sustainable World. France*: UNESCO.
20. <http://www.esd-world-conference-2009.org/>
21. *The University of Reading ECIFM*, <http://www.ecifm.rdg.ac.uk/inofsd.htm>

2010년 8월 13일 접수
 2010년 9월 14일 심사완료
 2010년 9월 16일 게재확정